한국어 단어와 중국 조선어 단어의 대조적 연구

-〈볼우물 처녀〉를 중심으로-

채 옥 자*

1. 서 론

본고는 중국조선족작가소설집인 <볼우물조선처녀>에 나타난 단어를 한국어 단어와 대조하여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어의 대방언권에 속하지만 중국이라는 대환경에서 독자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중국 조선어 단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 소설집은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소설작품들인 중편 4편과 단편 6편 등 모두 10편의 작품을 정선수록하였다.

중편으로는 김학철의 <반역자>, 리원길의 <한 당원의 자살> 그리고 림원춘의 <볼우물>과 김훈의 <청춘략전>등이 있고 단편으로는 강치생의 <퇴색한 사진>, 류재순의 <송화호의 푸른 물>이 있으며 김창대의 <기자의 량심>과 남주길의 <동트는 밀림>, 그 외에 류원무의 <오이꽃>과 원시희의 <선보러 가는 날> 등이 있다.

수록된 작품들은 시대적인 특성이 함축된 사건들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중국의 사회현실을 시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 조선족에 대한 진솔한 기록을 통하여 민족적 삶의 원형 및 그 정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는 데 공통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중국에서 우리말을 상용어로 하면서 漢語 즉 中國語를 병용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이중언

* 박사과정 수료

어사용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어휘의 언어적인 특성도 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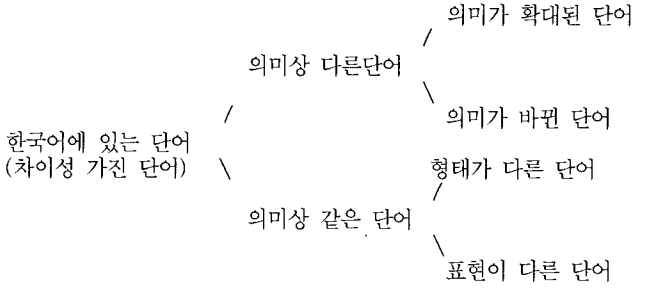
현시점에서 범민족적 통합에 앞서 가급적 언어격차를 좁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단일민족의 민족어를 규범화시켜 이끌어 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런 뜻에서 본고에서는 <볼우물조선처녀>에 나타난 단어 가운데서 한국의 한국어(여기에서는 이희승 국어대사전의 표제어)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 및 한국어에서 볼 수 없는 단어들을 주로 의미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소나마 중국의 조선어 단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본 론

본론에서는 우선, 주로 한국의 한국어와 비교하여 형태 의미론적으로 차이를 보여 주는 단어들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려고 한다.

즉 의미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와 의미적으로 같은 단어로 나누고, 의미상 다른 단어는 다시 의미폭이 확대된 단어, 의미소가 전혀 바뀐 단어로 나누며, 의미상 같은 단어는 다시 형태를 달리 하는 단어와 표현을 달리 하는 단어로 나누어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음, 중국 조선어에만 있는 단어들은 中國語로부터 받아들인 한자단어, 방언과 관련된 단어 등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 없는 단어 / 中國語로부터 받아들인 한자어
한국어에 없는 단어 \ 방언과 관련된 단어

2.1. 한국어와의 차이성을 갖는 단어

2.1.1. 의미상 다른 단어

2.1.1.1. 의미가 확대된 단어

● '검사하다'

▷ 김호천은 그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검사만 하였다.

(리원길, <한당원의 자살>, 120면)

'檢查하다'는 위의 문맥에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한국의 '반성하다'의 뜻으로서 한국이나 북한의 사전[1]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의미소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중국어에서 '檢查'[2]라는 동사가 한국어의 '검사하다', '검토하다', '반성하다'의 뜻을 두루 包括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

---

1) 이희승 ≪국어대사전≫
검사:사실을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함.
북한 사회과학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검사:①어떤 사물의 좋고나쁨이나 잘되고못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
②(어떤 물질의 상태나 구성성분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살펴 보거나 실험해보는것.

2) 중국어 '檢查'는 中韓辭典(高大民族文化硏究所와 中國語大辭典編輯室의 공동편집)에 '검사하다', '점검하다', '조사하다', '검열하다', '반성하다', '자기비판을 하다' 등으로 해석했다.

● '담보하다'

▷ "사실이라구? 그래 동무는 담보할수 있겠소?"

(김창대, <기자의 량심>, 310면)

여기에서 '擔保하다'는 '사실'과 통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한국어의 '보증하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담보하다'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담보하여 돈을 빌리다', '물적담보', '인적담보' 등과 같이 경제분야에서만 쓰이고 있으나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안전을 담보하다', '승리를 담보하다', '사실을 담보하다' 등과 같이 경제분야를 떠나서 '보장하다', '보증하다'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 '담박하다'

▷ "평화로운 세월과 자유로운 농사는 전쟁시기 군대생활의 격조높던 감정을 점차 담박하게 만들어 그런지도 모른다."

(리원길, <한 당원의 자살>, 109면)

위의 문맥에서 '淡泊하다'는 '담담하다, 시들하다, 적어지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국어대사전≫이나 ≪조선말대사전≫에 오른 표제어 '담박하다'에는 없는 뜻이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한자음 〔tambak〕은 中國語에서 두 가지 형태 즉 '淡泊'과 '淡薄'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우리 말 사전에 오른 '담박하다'는 전자이다. 이와 같이 우리말에서 전자만 차용하고 후자를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의미[3]를 혼용하는 현상은 어차

3) ≪中韓辭典≫淡泊:담박하다.마음이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
淡薄:①희박하다. 옅다.
②(감정,흥미 등이)담담하다[시들하다,적다].
③(인상, 관념이)희미하다[어렴풋하다].
④맛이 싱겁다.
≪국어대사전≫①욕심이 없고 순박하다.
②맛이나 빛이 산뜻함.
≪조선말대사전≫①욕심이 없고 순박하다.
②술이 독하지 않고 삼삼하다.

피 中國語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 조선어에서만 있음직한 일이라 하겠다.

㈣ '바쁘다'

▷"이 말만은 통역해 드리기 바쁜데요." (김훈, <청춘략전>, 225면)

형용사 '바쁘다'는 위의 문맥에서의 '딱하다'는 뜻 외에도 '시험문제가 바쁘다', '살아가기 바쁘다' '이 약은 먹기 바쁘다'하는 식으로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 등의 뜻으로도 쓰인다. 이는 같은 표제항의 ≪국어대사전≫의 의미[4]는 물론 ≪조선말대사전≫[5]의 의미보다도 그 의미폭이 더 넓은 셈이다.

㈤ '부옇다'

▷ "그리고 김호천이도 룡내천사람들을 잘못 다스린다고 진국재에게 보옇게 닦이웠다"(리원길, <한 당원의 자살>, 116면)

여기에서 '부옇다'는 '부옇게'형으로 '닦이우다'와 연어관계를 이루면서 '핀잔, 추궁이 어지간히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어대사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의미소이지만 ≪조선말대사전≫에서는 표제항의 두 번째 의미로 올랐고 '총각을 부옇게 핀잔하다'와 같은 예문도 보이고 있다.

㈥ '장악하다'

▷ 나이는 당자가 절대 비밀에 붙였으므로 아무도 그 정확한 년령은 장악하지 못하였다.(김학철, <반역자>, 56면)

---

4) ≪국어대사전≫ 바쁘다:①일이 많아서 쉴 사이가 없다.
②일이 조급하다.

5) ≪조선말대사전≫ 바쁘다: Ⅰ①일이 많거나 급히 해야 할 일로 겨를이 없다.
②매우 급하다.
③어떤 일이나 현상이 끝나자 곧.
Ⅱ①힘에 부치거나 참기 어렵다.
②매우 딱하다.

'掌握하다'는 그 외에도 '자료를 장악하다', '지식을 장악하다', '출석을 장악하다'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점에서 북한과 동일한 상황이나 한국에서는 의연히 '틀어쥠 또는 손아귀에 넣는 것'이란 뜻으로 '실권을 장악하다.' 정도로 쓰이고 있을 뿐이다.

㉡ '추구'

▷ 그러 찮으면 상대방에게 그 어떤 다른 추구가 있는지?

(김훈, <청춘략전>, 228면)

≪국어사전≫(김민수 금성출판사)에서 '追求'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뒤쫓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조선말대사전≫에서도 비슷한 뜻[6]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문맥에서는 '사랑의 대상'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으면서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나 북한에서는 사전에서와는 달리 흔히 명사로 쓰이지 않고 '추구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처럼 '추구하다'는 한국이나 북한에서처럼 '행복을 추구하다', '이상을 추구하다', '이윤을 추구하다.' 등과 같이 쓰이는 외에 '사람을 추구하다'는 식으로 '사랑하다', '좋아하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1.1.2 의미가 바뀐 단어

㉠ '사업'

▷ 수호는 란희를 별로 념두에 두지 않았다. 그는 정력을 사업에 몰두하였다.(김훈, <청춘략전>, 223면)

위의 문맥에서처럼 중국의 조선어나 북한에서는 '事業'이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일'이란 뜻으로 쓰이나 한국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계획 밑에서 경영하는 경제적 활동'이란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6) ≪조선말대사전≫ 추구:①뒤쫓아가서 구하는것 ②애써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

점에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탐오하다'
▷ 그는 탐오한 돈으로 계집놀음도 했지만 적지 않게는 자신의 벼슬길을 위해 모모한 량반들의 코아래 진상을 하였던 것이다.(리원길, <한 당원의 자살>, 126면)

위의 문맥에서 '貪汚하다'는 '떼먹다'라는 뜻으로서 ≪조선말대사전≫에서 '貪汚하다'의 의미[7]와 비슷하다. 그런데 ≪국어대사전≫에서 '탐오하다'는 통사적 기능부터 다른 형용사로서 그 뜻은 '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더러움'으로 되어 있다.

● '흔연하다'
▷ "너무하지 않을가?"
수호의 말에 설옥은 아주 흔연하게 대답하였다.
"검질긴 남자들에겐 좀 무례하게 보이는 것도 랑패없어요."
(김훈, <청춘략전>, 227면)

여기에서 '欣然하다'는 형용사로서 '심상하다, 대수롭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국어대사전≫의 '매우 기뻐하는 모양'이라는 의미와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2.1.2 의미상 같은 단어

2.1.2.1 형태가 다른 단어

한국, 북한 및 중국의 맞춤법의 내용과 범위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특히

7) ≪조선말대사전≫ 탐오하다:국가재산이나 사회의 공동재산을 남모르게 빼돌려 제것으로 하는 범죄적 행위.

한자어에서 의미는 같으나 첫음절 형태를 달리하는 단어들이 많아 졌다.

▷ 력연하다 - 역연하다
류창하다 - 유창하다
린색하다 - 인색하다
루설하다 - 누설하다
로출시키다 - 노출시키다

2.1.2.2 표현이 다른 단어

이 부류에는 의미-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울리는 단어를 서로 달리 하는 단어들을 포괄시키고 있다.

▷ 시험을 치다 - 시험을 보다
전화를 치다 - 전화를 걸다
역할을 놀다 - 역할을 하다
맥이 진하다 - 맥이 빠지다
애가 나다 - 애가 타다

2.2. 한국어에 없는 단어

2.2.1中國語로부터 받아들인 한자어

● '가강하다'

▷ 로농동맹을 가강하는 뜻깊은 일이기에 제대군인중에서도 우수한 당원을 보내라' (리원길, <한당원의 자살>, 101면)

위의 문맥에서 동사 '加强하다'는 '강화하다'와 같은 뜻으로서 '더 튼튼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란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어대사전≫에서는 보이지 않고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그 품사적 기능이 형용사로 되어 있고 '더욱 완강하다'는 뜻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가강히'는 부사로서 '가강하게'와

같다고 수록되었다.

❸ '내심하다'

▷ 수호는 가로수에 기대여서서 내심하게 기다렸다.(김훈, <청춘략전>, 229면)

여기에서 '耐心하다'는 형용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참을성 있다', '인내성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국어대사전≫이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동음한자단어인 명사 '內心'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말대사전≫에서 '내심이 있다'는 성구가 '속이 깊고 참을성이 많다'는 뜻으로 '내심있게'로도 쓰인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耐心하다'의 의미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❷ '료해하다'

▷ 하긴 설옥에 대한 접촉과 료해, 그리고 평소에 설옥에 대한 호감이 없었더면 수호는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감히 설옥을 미혼처역으로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김훈, <청춘략전>, 251면)

'了解'는 ≪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오르지 않았으나 ≪조선말대사전≫에는 올랐는데 그 뜻을 '사정이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런데 위의 문맥에서 보다시피 중국조선어에서 '了解하다'는 '자세하게 잘 알다, 이해하다'의 뜻도 나타내면서 '사람'과 통합관계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북한과도 구별되는 특징이다.

❹ '보귀하다'

▷ 마음은 이름할 수 없는 불안에 떨렸고 그 무슨 보귀한 것을 잃어 버린 듯 허전하였다.(김창대, <기자의 량심>, 312면)

'寶貴하다'는 위의 문맥에서처럼 '귀중하다'의 뜻으로 '보귀한 생명', '보귀한 시간' 등 형식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어대사전≫에는 표제항으로

오르지 않았고 ≪조선말대사전≫에는 같은 뜻으로 올라있다.

㉤ '시탐하다'
▷ 수호는 여러모로 란희의 태도를 시탐해보았다.
(김훈, <청춘략전>, 228면)

여기에서 '試探하다'는 '떠보다', '넌지시 알아보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단어로 ≪국어대사전 ≫에는 없고 ≪조선말대사전≫에는 있으나 지난날에 쓰이던 한자말이라고 밝히면서 그 의미[8]는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 '응부하다'
▷ 속내가 번연한데도 모르쇠를 대니 어떻게 응부한단말인가?
(림원춘, <볼우물>, 164면)

위의 문맥에서의 '應付하다'는 '대응하다, 대처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이는 한국과 북한에서 쓰지 않는 한자단어인 바 그 뜻은 中國語 동사인 '應付'의 첫 번째 뜻에 해당된다.

㉦ '배동하다'
▷ 작년 가을 설옥이와 함께 미국상인을 배동하여 장백산으로 갈 하이야(승용차)안에서 있은 대화가 생각났던 것이다.
(김훈, <청춘략전>, 224면)

여기에서 '陪同하다'는 한국이나 북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한자말로서 中國語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동반하다, 수행하다, 모시고 다니다'의 뜻을 나타낸다.

---

8) ≪조선말대사전≫ 시탐:명⊗ 시험적으로 찾아보는 것. 시탐하다[타동]

그 외에 中國語로부터 받아들인 명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공안국, 하향지식청년, 속심나누기, 합작사, 4인무리, 무산계급법제, 대동란, 교역회, 처경, 입당적극분자 등.

2.2.2 방언과 관련된 단어

2.2.2.1 함북방언과 관련된 단어

▷ 언녕 (진작), 인차 (금방), 수태(많이), 허구프다(허전하고 어이없다), 구뎅이(구덩이), 떨구다(떨어뜨리다), 굼때우다(불충분한대로 이럭저럭 메꾸거나 치러넘기다), 답새기다(두드려패거나 족치다), 알쭌하다(매우 순수하다, 말끔하다), 왜서(왜그래서의 준말).

2.2.2.2 동북 3성 지방말과 관련된 단어

▷ 가따나 (가뜩이나), 줄욕(된욕), 왕청같다(엉뚱하다), 해나른하다(아주 나른하다), 에때우다(대충 요기하다), -더럼 치다(셈 치다).

위에서 '에때우다'의 '에'는 '애'에 해당되는데 중국조선어에서도 '애태우다', '애간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3. 결 론

이상 본론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상대적으로 의미가 확대된 단어들과 中國語로부터 받아들인 한자어들을 비롯한 특징적인 단어들을 선택하여 분석 고찰하였는 바 주로 한국과 북한의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가급적 중국 조선어만이 가지는 언어적 특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중국 조선어의 단어구성에서 특유한 이런 특성의 형성원인을 보면 우선, 우리말은 일찍부터 통일된 민족언어로서 그 규범도 하나이었던 것이 한국과 북한이 상이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생김에 따라 표준어를 이루는 기초방언이 달라졌고 더욱이 어휘규범화의 기준이 달라졌다. 그리고 중국조

선어의 어휘규범화는 북한과의 차이를 승인하면서도 공통성을 증가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상이한 어휘규범화의 기준은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대환경하에 조선어를 상용어로 하지만 中國語를 併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중언어라는 소환경에서의 中國語의 영향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변언어연구소에서 해방후 조선어 어휘구성에 보충된 2,139개의 새 명사, 술어를 분석한데 의하면 中國語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1,670개로서 78%를 차지한다고 한다.(『조선어학론문집』, 1984, 민족출판사)

그 다음, 우리말에서의 한자어휘의 특성이 그 내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음운론적으로 한자어휘는 우리말 음운체계 속에서 발전하면서 중국과 다른 한국식 한자음을 형성하였고 둘째로 造語論적으로 생산성이 강하다. 셋째로 통사적으로 구절적 기능 대신 하나의 품사적 기능을 하는 등 言語經濟면에서 고유어에 비하여 매우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내심하게—참을성있게, 료해하다—자세하게 잘 알다.) 또 다른 한 원인은 한국 한자어휘의 保守性과 固有性 및 中國語 신어휘 생성의 迅速性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어휘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미가 확대된 것과 中國語로부터 받아들인 어휘들이다. 논리적 관점으로 분류한 의미변화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의미확대는 어휘의 다의성을 형성하는 바 이는 언어의 경제성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언어표현의 모호성, 단조로움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중국 조선어 어휘구성에서만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中國語로부터 한자어휘를 받아들인다면 어차피 우리 민족어의 이질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서 의사소통 및 문화교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조선어어휘규범화작업은 중국의 실제를 돌보면서 오직 불가피하게 생기는 새말과 어휘의미를 제외하고는 우리민족어의 동질성을 강화하고 적어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미 형성된 기존 표준어를 토대로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회 편(1990), 『볼우물조선처녀』(중국조선족작가소설선), 서울: 도서출판 판.
최윤갑 외(1994),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어 차이에 대한 연구』, 연길: 연변 인민출판사
심재기(1981), 『국어어휘론』, 集文堂.
심재기 · 이기용 · 이정문(1984), 『의미론序說』, 集文堂.
류은종(1996), 『조선어의미론연구』,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이희승 편(1982 수정 증보판),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程崇義, 「韓 中漢字語의 變遷에 관한 比較연구」, 『國語硏究』 80號, 서울대국어 연구회.